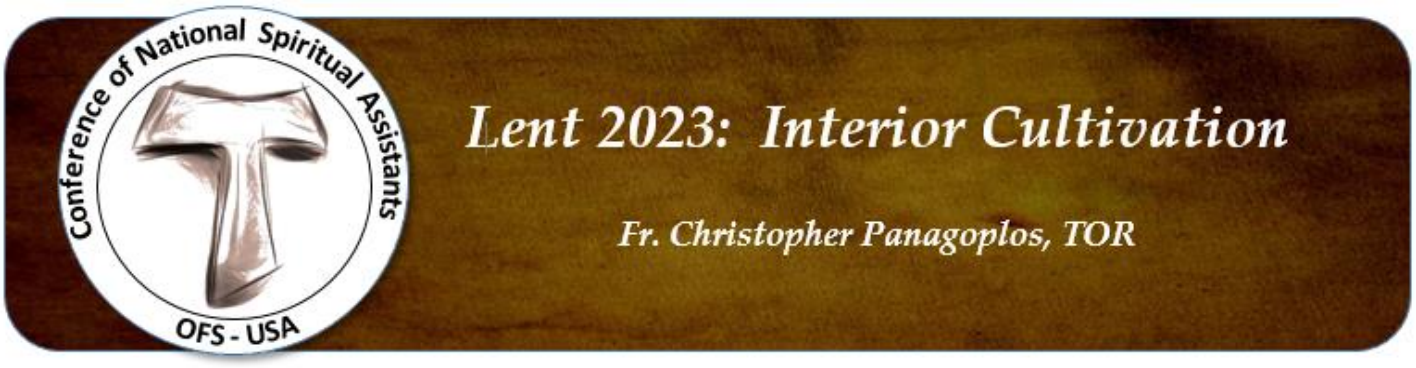

"듣기" - 정원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때문에 매력적이지요. 정원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대지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들은 결실있는 성찰과 실천적 기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약속과 희망,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된 이 땅의 구획은 하느님의 풍성한 풍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신뢰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지요. 때때로 우리가 정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때, 정원은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내적 수양을 합시다. "사순절의 봄"은 내적 수양을 위한 최고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라는 곳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봄날의 연초록의 새로움, 우리 자매인 어머니 지구를 장식하는 향기로운 꽃, 형제인 태양의 회복된 온기 같은 것 말입니다.

"식별하기"—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물리치거나 피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기도 하구요. 정원사로서의 우리는 토양을 경작하고 굳어진 표층의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분노의 덩어리, 무관심의 단단한 바위, 불만의 오래된 뿌리와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프란치스칸 여정에서 나는 어떤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나요? 내 마음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키우려고 할 때 , 어떤 오래된 뿌리에 엉켜버리게 되나요?

정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신비한 과정 하나가 퇴비를 만드는 일입니다. 퇴비 더미 – 우리가 가진 퇴비 더미들로 내적 수양을 해 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나의 기도와 성찰은 가려져있던 내 성격에 대한 의식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싶지 않은 어떤 성격적 특성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동안 인지하고 있었지요. 나는 또한 이러한 결점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저 시간 문제라는 착각에 빠져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결점의 조각들과 나의 일부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며, 나는 결코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은 내가 온전한 한 인간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정말로 우울한 일이었죠. 또한 내 마음의 토양에서 내적 수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가진 퇴비 더미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상황을 바꾸게 한 것은 내가 퇴비더미 위에 놓은 것, 즉 나였습니다: 그것은 조바심, 혼란, 약간의 완고함의 섞인 의심, 통제, 남은 분노,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사고 패턴, 사랑없이 서둘러하는 말, 고통과 부조화에 기여하는 부여하는 말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퇴비 더미입니까! 부엽토 – 지구의, 땅의 토양. 인간 – 지상의 존재. 나는 흙에서 온 존재이지요. 내 삶의 퇴비 더미에서 생산된 내 자신의 부엽토는 변화과정을 비료로 삼아 인간이 되도록 돕습니다. 부엽토, 인간, 겸손. 나는 내가 땅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나는 영적의 일을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사랑, 봉사, 정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선택하십니다. 프란치스코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엽토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포용하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해야 하지요. 내적 수양은 우리가 가장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성격적 특성을 개인의 성장을 위한 원재료와 통합하여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림자처럼 가리워진 요소들을 생각할 때, 지혜는 이것들이 가치있는-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치유의 은총,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치유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지요.

"나아가리다"

기도는 퇴비가 토양을 윤택하게 하듯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오소어, 주 예수여,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당신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영원한 사순절의 장소를 비추어주소서.
이러한 곳을 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떠나야 할 것들을 뿌리뽑고, 당신의 부활의 기쁨을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내가 살고 일하고 형제애를 나누는 사람들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하여 주소서.
내안에, 타인과의 관계가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안,
당신의 부활의 치유와 화해를 필요로 하는
이 부서진 곳으로 오십시오.
자신의 겟세마네를 통해 길고 외로운 길을 걷는 이들 안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 안에서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있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의 기쁨 안에 있는 희망의 잠재된 확신의 빛속으로 들어올려 주소서.

육체안에서가 아닌 마음 안에서 바뀜 ,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동안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사업에서 물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장 깊은 자아 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노련한 장사꾼처럼 그는 자기가 발견한 진주를 조롱하는 자들의 눈에서 부터 숨기고 가진것을 팔아 비밀리에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행동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더 좋은 것을 숨기기 위해 좋은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대해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느님께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큰 고통을 견디며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이룰 때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1Celano 6)

이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마음의 토양을 경작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태어나실 때까지 쉬지 맙시다. 그러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